

11월 구역모임

성도의 교제

☪ 1. 환영 Welcome

- ◎ 인사와 교제
- ◎ 감사와 나눔

☪ 2. 찬양 Worship

- ◎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220장)
- ◎ 주 믿는 형제들 (찬221장)
- ◎ 여기에 모인 우리 (찬620장)

☪ 3. 말씀 Word

“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3)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133:1~3)

교회 생활의 기본자세 가운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온전히 설 때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됩니다. 곧 형제자매의 관계로 나아가는 ‘교제’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코이노니아’(koinonia)라고 합니다. 여기서 형제자매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는 형제와 자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코이노니아는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관계 사이의 교제를 뜻합니다.

“3)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1:3~5)

빌립보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교회처럼 은사가 많은 교회도 아니요, 베뢰아교회처럼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칭찬받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빌1:8)라고 말할 정도로 빌립보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빌립보교회에는 복음 안에서 늘 형제자매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 형제자매 간의 사랑

교회의 존재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 성장의 터전’, ‘성도 간의 사귄과 나눔’, 그리고 ‘세상을 향한 봉사’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교회 자신인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 존재합니다. 성격적으로는 건물이 교회 아니고 성도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즉 교회가 되기 위해 같이 지어져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교회는 경영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건물의 형태와 조직만 가진 채 성도들의 영혼 성장과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건물로 지어져 가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각종 사업이나 사역에만 신경을 써 성도들의 영혼을 고갈상태로 내 몬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종심에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관심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 간의 사귀를 위해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고린도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제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법정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격양된 어조로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1)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 4)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5)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고전6:1~2, 4~6)

바울은 성도 간의 관계는 세상의 그 어떤 관계와도 구별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일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재판 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이요, 육의 피보다 더 진한 영적 피를 나눈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고전6:7)

세상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미 성도간에는 잘한 사람도 없고 잘못된 사람도 없으며, 더 잘한 사람도 없고 덜 잘못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서로 치고 받으려는 순간, 이미 형제자매로서의 신의를 하나님 앞에서 깨뜨려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고 속고 매 맞고 침묵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바른 자세임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의 권면에서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한 깊다 못해 비장하기까지 한 뜻이 무엇인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종의 신비와 경외감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대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지 못한 진정한 평화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요,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13:3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은 바로 성도 간의 사랑에 있다는 뜻입니다.

(2) 교제는 하나 되는 사귄다

“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3)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133:1~3)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디아스포라가 되어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흩어져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일 년에 세 번 있는 명절 중에서 최소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그 한 번의 축제를 위해 나머지 날들을 얼마나 가슴 설레며 보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750m 고지에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이 시편 133편의 노래를 부르며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일 년 동안 이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기를 얼마나 고대하며 이방 땅에서 살아왔던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어지는 그들의 고백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2절)입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여기서 기름은 제사장을 안수할 때 쓰는 것으로, 대단히 신성한 기름이기에 너무 많이 뿌려도 너무 적게 뿌려도 안 되었습니다. 머리 위를 적당한 수준으로 축축이 적실 수 있도록 안수하기 전에 미리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이는 형제가 모여서 함께하는 교제의 깊이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여기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라는 경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서로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나눔과 사귄다 흘러내려 가는 것이 바로 형제간의 교제입니다.

3절은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혈몬 산은 가나안 동북쪽의 아름다운 산입니다. 그에 반해 시온 산은 예루살렘 옆에 있습니다. 혈몬 산에서 시온 산까지의 거리는 약 240km로, 대략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얼마 안 되는 거리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로 보면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중간까지의 거리입니다.

시편 기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혈몬 산의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리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혈몬 산의 이슬은 당연히 혈몬 산에 내리기 때문에 시온 산이 혈몬 산의 이슬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마치 혈몬 산의 이슬이 혈몬에 내리지 않고 시온에 내리며, 시온이 자기 산의 이슬이 아님에도 이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경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혈몬의 이슬이 혈몬의 경계를 넘어 240km의 먼 거리를 지나 시온 산에 내림으로 혈몬과 시온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는 성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벽과 경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화의 장벽, 빈부의 장벽, 세대의 장벽, 지식의 장벽, 그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감의 장벽 등 성도를 나누는 많은 장벽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안의 사랑 때문에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혈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형제가 모여 서로 동거함의 의미입니다.

(3) 교제는 물질의 나눔이다

교제는 다양한 벽을 넘어 사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즉 영적 사귄과 물질의 나눔을 합해서 교제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분을 보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신앙의 함정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외면한 채 드리는 중보기도는 온전한 영적 사귀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적 교제는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향한 적절한 나눔을 요청합니다. 즉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를 실질적으로 돕는 작은 행동이 따라 주어야 참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45절에서는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 들어오시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진정한 영적 만족감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간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행4:32)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된 교제입니다.

우리는 액수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어려운 자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알게 된 이유는 ‘그의 형편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임한 것이라고 믿어도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대방을 돕되,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하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교회에는 목적 헌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특정인에게 헌금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주일에 드린 목적 헌금은 주초에 무기명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교회를 거쳐 무기명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기에 도움을 받은 사람은 누가 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자연히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것입니다. 아울러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우리는 사람에게 칭받받는 대신 하늘에 더욱 큰 보화를 쌓게 됩니다.

✦ 삶의 적용을 위한 나눔 ✦

- (1) 오늘의 공과말씀 중에 특별히 내 마음을 끌거나, 여운이 남는 대목이 있다면 나눠보십시오.
- (2)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눔과 신실한 사귀를 통해 형제/자매가 실질적인 하나 됨을 이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내 자신의 마음, 태도, 행위 등이 있다면 정직하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 (3) 그 외 이번 달 공과의 내용이 주는 은혜, 도전, 격려 등이 있다면 얘기해보시고, 이를 어떻게 실천할지를 기도제목으로 나눔 후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 4. 중보기도 Work

- ◎ 가정과 개인을 위한 기도
- ◎ 교회와 나라와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 합심기도 후 ‘주기도’로 구역모임을 마칩니다.